

# 프랑스 작가 네르발의 중편소설 『실비』의 정념과 담화 기호학적 분석

홍정표\*

## 【 차 례 】

- I. 머리말
- II. 특수한 발화(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 1. 발화와 의사소통
  - 2. 발화와 주관성
  - 3. 발화와 언어활동
- III. 『실비』(발루아의 추억)
  - 1. 작가 네르발에 대하여
  - 2. 텍스트 분석
    - 1) 담화 기호학적 분석
    - 2) 정념 기호학적 분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프랑스 기호학자 자크 폰타닐(Jacques Fontanille)이 1999년 발표한 담화 기호학에서 일반적인 발화의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발화의 개념에 대해 이론을 개진했다. 본고에서는 특수한 발화에 대한 그의 연구 가운데 <발화와 의사소통>, <발화와 주관성>, <발화와 언어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담화 기호학의 시각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발화자와 발화 상대방이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담화와 관련하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관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이 아니며, 담화 현동태의 행위소 구조는 단지 위치적일 뿐이다. 또한

\* 단독저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외래교수, [cafecreme@hanmail.net](mailto:cafecreme@hanmail.net)

발화는 이중의 메타 담화적 서술화인 존재적 서술화와 수용적 서술화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두 서술화는 발화를 일반적인 <언어활동>과 구별되게 한다. 이렇게 발화는 담화 기호학에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네르발(G. de Nerval)은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나 랭보처럼 작품과 삶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신비하고 마술적인 세계에 가까운 작가이다. 더불어 그는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작품 『실비』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고향 발루아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분석에서는 이 작품이 아직 기호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만큼, 정념과 담화 기호학의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담화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현상학적 분석과 수사학적 분석을, 정념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실비의 질투와 실망, 주체의 자만심과 변덕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열쇠어 : 메타 담화적 서술화, 발화, 수용적 서술화, 언어활동, 의사소통, 존재적 서술화, 주관성

## I. 머리말

프랑스 기호학자 자크 폰타닐(Jacques Fontanille)이 1999년에 담화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담화 기호학을 발표했다. 그는 발화가 파롤에 대한 연구이므로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다시 연구하여 담화의 관점에서 발화의 개념을 명시하고자 했다.

그는 일반적인 발화의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발화의 개념에 대해 이론을 개진했는데, 특수한 발화의 개념이란 발화를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communiqué)>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칭과 <주관성(subjectivité)>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발화는 이중의 메타 담화적 서술화(prédication métadiscursive)인 존재적 서술화(prédication existentielle)와 수용적 서술화(prédication assumptive)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두 서술화는 발화를 일반적인 <언어활동(actes de langage)>과 구별되게 한다.

현대 언어학에서 발화는 의사소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체 중심의 의미 연구라고 간단히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담화 기호학에서는 의미를 동적이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것은 모두 발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발화가 연구의 중심이 되며 발화되고 있는 담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가 선택한 작품 『실비』<sup>1)</sup>의 작가 제라르 드 네르발(Gérard de Nerval)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고뇌와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발루아를 추억하며 쓴 이 작품은 작가가 젊은 시절 얻을 수도 있었으나 아쉽게 놓쳐버린 씁쓸한 사랑 이야기와 몽상적인 삶을 감명 깊게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실비』는 정신분석학적 비평가들, 구조주의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 적지 않게 연구되었지만, 담화 기호학과 정념 기호학으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자는 이 텍스트를 두 기호학 이론으로 분석하

---

1) *Sylvie, Le livre de poche, 1999.*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나’는 매일 저녁 정장을 하고 극장에 가서 흠모하는 여배우 제니 콜롱(혹은 오렐리)의 등장을 기다리고 그녀의 연기를 바라보았다. 고향의 추억을 환기시켜 주는 신문 기사를 읽은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는 어슴푸레한 잠결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를 되새기며, 후에 수녀가 된 발루아 가문의 소녀 아드리엔과 어린 시절 여자 친구 실비를 회상하였다. 그 당시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아련한 영상과 서글프게 끝나 버린 애뜻한 우정을 가슴에 품고 공부하던 파리로 떠났다. 이 같은 아드리엔에 대한 추억으로 그는 자신이 저녁마다 여배우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갔던 것이 여배우의 모습을 통해 수녀 아드리엔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듯 그는 아드리엔이라는 꿈 속의 여인을 오렐리라는 실제 인물과 동일시하였다. 루아지의 무도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실비의 남자친구와 마주치는데 남자친구가 대단한 라이벌이 못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곳 양치기였던 도둑영감이 실비와 그의 짓형제인 키 큰 곱슬머리와의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귀띔해 주었다. 이 말에 실망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다음 날 파리로 돌아갔다. 그가 파리에서 오렐리에게 자신의 사랑의 근원에 대해 고백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며 이제는 그를 믿지 않으니 가라고 하였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젊은 시절 얻을 수도 있었던 행복을 아쉬워하며, 행복은 여기 이곳에, 실비와 더불어 있는데 그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다른 환영만을 쫓아 다녔다고 후회했다. 그가 쫓던 다른 환영인 아드리엔은 이미 오래 전 1832년경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그제서야 실비가 말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실비, 오렐리, 아드리엔 세 여인을 모두 놓쳤다. 결국 그가 사랑했던 것은 어느 한 여인이 아니라, 그의 꿈, 동경, 추억을 통해 이상화된 영원한 여인상이었다.

여 그 유효성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Ⅱ. 특수한 발화(담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풍타닐은 담화 기호학에서 일반적인 발화의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발화의 개념에 대해 이론을 개진했다. 특수한 발화의 영역을 명시하는 것은 우선 이를 세 가지 다른 영역(의사소통, 주관성, 언어활동)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며, 특수한 발화는 이 세 가지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특수한 발화에 대한 풍타닐의 연구 중에서 <발화와 의사소통>, <발화와 주관성>, <발화와 언어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발화와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관점은 공동체 내에서 메시지 순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포괄적인 상황 안에 언어활동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회학적, 제도적 혹은 심리학적 성격을 띠는데, 상황이 포괄하는 담화와 발화체의 의미, 그리고 특히 발화 행위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렇게 상황이 의미를 결정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거나 분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담화 기호학의 시각은 의사소통의 관점을 무효화하는 것인데, 메시지의 순환으로 축소된 의사소통의 개념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한 발화의 관점으로 보면, 사회-심리학적 유형의 기호학 외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메시지 순환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것이 담화 현동태(instance)<sup>2)</sup>의 위치 주위에 정리되고, 이 위치를 구축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 위치를 수용

---

2) 담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감각적인 신체를 말하며, 위치(position), 장(champ), 행위소(actant) 등 소수의 특성을 내포함.

하거나 거부하며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발화자와 발화 상대방에게 있어서 메시지를 순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담화와 관련하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발화와 주관성

주관성의 개념은 생산의 관점에 놓이는지 혹은 해석의 관점에 놓이는데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생산의 관점에서 주체는 발화체에 대해 자신의 위치의 양태를 과시하면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반면에 해석의 관점에서 주체는 자신의 활동과 위치의 특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발화 행위의 창시자 벤베니스트(E. Benveniste)는 “‘너’를 ‘나’가 나타내는 주관적 인칭(personne subjective)과 대조하여 비주관적 인칭(personne non-subjective)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두 인칭은 모두 비인칭(non-personne)의 형태(=그)와 대립할 것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이런 주장은 논의의 여지가 많음에도 표준적인 것이 되었는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개념적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담화 현동태에서 인칭 범주로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인칭 범주에서 주관성으로의 이동이다.

담화 현동태는 인칭을 포함하며, 인칭은 주관성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동은 일반화될 수 없다. 영화 기호학의 대가인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는 영화의 발화 행위에서 인칭 범주의 적용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비인칭 발화를 권장하고 있다.

---

3)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Gallimard, 1966, p.232.

게다가 발화 실천에 대한 고찰도 발화의 비인칭 개념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발화는 보편적인 서열을 갖는 개념인 반면, 인칭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아(Ego) 중심의 발화는 인도·유럽어에서 전형적인 것인데, 그 곳에서는 자아라고 말하면서 서술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가 자아이다.

반면에 아시아의 언어를 살펴보면, 특히 일본어에서는 우리가 자아라고 지칭하는 위치가 두 번째 서열의 위치인데, 이는 타인의 지위로부터 설정되고 지칭되며,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계층에서 자신의 지위에 따라 규정된다. 이 경우에 발화의 지시대상은 더 이상 자아 중심이 아니라, 인칭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회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동은 발화에 행위소 범주를 도입하기 때문에 좀더 유감스럽다. 실제로 주관성 개념은 다양한 변형 행위소들(주체/대상/발령자/수령자) 간의 구별을 지시한다. 반면에 담화 현동태의 행위소 구조는 단지 위치적일 뿐이며, 분석의 관점에 따라 장의 용어로 중심, 지평, 깊이, 위치의 용어로 기점, 목표, 통제를 추출할 수 있을 따름이다.<sup>4)</sup>

주관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담화 현동태의 위치적 구조를 발화된 담화의 변형적 구조로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체가 변형적 유형의 행위소이므로 발화 행위는 서사적 변형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관점이 당연히 고찰될 수 있다 하더라도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은 아니다.

주관성은 대화를 전제로 한 인간언어의 특성 때문에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나’와 ‘너’는 상호주관성의 관계에 있으며 발화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성격이 있어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는 등 발화 주체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 폰타닐은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은

---

4) 이는 모두 담화 기호학의 분석 도구들이며, 몇몇은 3장 2. 텍스트 분석에서 활용됨.

- (1) 발화 장(champ de l'énonciation)의 문화적 도식화를 지시하는 인칭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2) 발화의 대용품으로서가 아니라, 행위소들의 양태적 정체성의 점진적인 구성의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주관성의 문제는 담화 현동태의 위치 결정(prise de position)<sup>5)</sup>의 문제와 엄밀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위치 결정이 인칭과 주체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담화 기호학에 주관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이 아니며, 담화 현동태의 행위소 구조는 단지 위치적일 뿐이다.

요컨대 발화는 전체 담화가 조직되는 장소이고, 형상소의 생성을 책임지는 현동태이며, 합리성과 가치론을 따르는 유의미적 집합체를 형성하는 활동을 책임지는 현동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3. 발화와 언어활동

고대 철학자들은 언어가 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세계를 변형시키고, 사물과 타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행동이 없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상상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가 언급하는 사태에 관한 유효성과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발화와 담화를 생각할 수 없다.

서술화는 발화의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언어활동의 바탕 위에서 발화 행위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발화 행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자 한다.

우선 발화 행위는 발화체를 단언한다. “단언(assertion)은 그 억양에서

---

5) 담화 현동태의 첫 번째 활동이며 모든 작용의 기점으로 사용됨. 표현면과 내용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조작자인 행위소(느끼는 신체)임.

처럼 그 통사적 표현법에서도 어떤 확신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화 속에 화자가 현존한다는 가장 흔한 표시이고, 단언을 표현하거나 함축하는 특수한 도구들까지도 갖고 있는데, 단어 ‘네’와 ‘아니오’ 는 어떤 명제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이다.”<sup>6)</sup>

이렇게 단언은 발화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담화 존재태(mode d’existence)<sup>7)</sup>가 현존한다. 그래서 메를로 폰티는 ‘발화한다는 것은 언어활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현존(présence)<sup>8)</sup>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 다음에 발화 행위는 단언을 수용한다. 담화 현동태의 위치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위치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그 위치를 다시 단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 행위는 이 같은 두 가지 상보적인 관점, 단언과 수용(assomption)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이 단언과 수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언은 존재적 서술화로 인도하면서, 발화체의 현존과 관계하고 담화의 현존의 장을 변화시킨다. 특히 발화의 활동은 이 장에 발화체를 위치시키고, 존재태인 현존의 정도를 발화체에 부여하는 활동임을 쉽게 도출한다. 이 현존의 강도와 범위 위에 작동하면서, 존재적 서술화는 어떤 발화체를 ‘실현된’으로, 다른 것을 ‘잠재된’으로, 또 다른 것을 ‘가능화된’ 등으로 처리할 것이다. 여러 양태들이 네 가지 주요 존재태<sup>9)</sup>에서 직접 도출되기 때문에, 존재태는 양태화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수용은 자기-지시적(auto-référentielle)이다. 수용의 활동은 담화

---

6)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Gallimard, 1974, p.84.

7) 담화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형식을 부여한 것.

8) 맨 처음 지각되는 감각적 자질로서 지각의 첫 번째 기호학적 분절이며, 담화 현동태의 최소 특성.

9) 표출 상태와 잠재 상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현실태와 실현태가 속하고 후자는 가능태와 잠재태가 해당함. 현실태에 속하는 양태는 지식(savoir)과 능력(pouvoir)이며 실현태에 해당하는 양태는 존재(être)와 행위(faire)이고, 가능태에 속하는 양태는 가정(assumer)과 동조(adhérer)이며 잠재태에 해당하는 양태는 의지(vouloir)와 의무(devoir)임.

현동태가 그 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위치를 알리는 활동이다. 동시에 수용적 서술화는 현존의 다른 분절이며 첫 번째 서술화와 상보적이다. 어떤 점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현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담화 현동태의 현존, 장에서 나타나며 그 자체가 아닌 것에 대한 현존이 문제이다. 현존은 또한 강도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화용론자들이 서술화의 활동에서 발화내적 힘(force illocutoire), 참여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범위로도 표현되는데 수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 두 수준의 서술화는 발화를 일반적인 언어활동과 구별되게 하며,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데, 이는 메타 담화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발화 행위는 언어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표출하는 언어의 특성을 말한다.

『기호학 사전 I (*Sémiotique I,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sup>10)</sup>에서 그레마스와 꾸르테스는 기호학 이론 자체의 과학적 메타언어에 발화의 비과학적이고 서술적인 메타언어를 대립시켰다. 이렇게 발화는 서술적 메타언어인데, 그 이유는 발화체를 서술화하면서, 발화가 자신의 행위를 표방하고 그것을 코드화하며 감각적이거나 관찰가능한 사건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발화는 담화가 그 자신의 장에서 일어나는 것, 규모, 활동, 사건을 말하는 장소이다.<sup>11)</sup>

### Ⅲ. 『실비』(발루아의 추억)

#### 1. 작가 네르발에 대하여

네르발(1808~1855)의 본명은 제라르 라브뤼니(Gérard Labrunie)이며 네르발은 그의 필명이다. 네르발이라는 이름은 옛 발루아(Valois)<sup>12)</sup> 지방

10) Hachette, 1979.

11)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p.267~284 참고.

12) 파리 근교 동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 영주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발루아 왕가

에 위치한 외가의 소유지 명칭인데, 이런 점에서 이 이름은 그의 외가 뿐 아니라 모친과 긴밀히 연관된다.

부친은 나폴레옹 군대의 종군 의사였고, 모친은 네르발이 태어난 지 일 년 후 남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다가 열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네르발은 모친을 알지 못한 채, 그녀의 고향 발루아 지방에서 외종조부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 때 발루아 지방의 정경과 설화들이 항상 모친을 그리워하던 어린 네르발이 몽상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훗날 파리로 유학을 간 후에도 방학이면 발루아 지방을 찾곤 하여 이 지방은 그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네르발은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나 랭보처럼 작품과 삶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신비하고 마술적인 세계에 가까운 작가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생전이나 사후에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으나 작품 안에는 상징주의의 싹이 있으며, 작가 프루스트(M. Proust)와 아폴리네르(G. Apollinaire), 브르통(A. Breton)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로부터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고 이들은 네르발을 칭송하며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선구자로 평가될 정도로 그의 작품에는 상상세계뿐 아니라 초현실의 세계가 있다. 현대에 와서 프랑스 사람들은 네르발을 가장 프랑스적인 서정적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

“네르발이 죽은 후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실비』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 작품을 극찬했고, 『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차와 마들렌 과자의 향기’는 네르발의 『실비』에서 ‘신문 광고’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sup>13)</sup>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 중

---

(1328~1589)가 탄생함.

13) G. de Nerval, Sylvie/Promenades et souvenirs, *Oeuvres Complètes III*, Ed. Jean Guillaume et Claude Pichois, Gallimard, 1993. (이준섭 역, 『실비/산책과 추억』, 지만지, 2008, 9쪽)

편소설 『실비』는 1853년 8월에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1820년에서 184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의 마지막 무렵인 1853년에 쓴 것으로, 1830년대에 우연히 작가의 눈에 뜨인 신문의 두 줄 기사가 작품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그의 고향 발루아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계속되는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같이 맞이해 주는 발루아 지방에서 『실비』를 집필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역은 모두 그의 유년시절, 청년시절과 긴밀히 연관된 것들이다.

『실비』는 작가가 자살이라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기 2년 전인 1853년 문예지에 발표되었다가 19세기 위대한 작품 중 하나에 속하는 중편소설 모음집 『불의 딸들(*Les filles du feu*)』(1854)에 수록되었다. 이 모음집에서 『실비』는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의 대표작들은 모두 1840년대에 두 번에 걸친 정신병 발작 이후 죽음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표되었다.

## 2. 텍스트 분석

텍스트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부터 7장까지와 8장부터 14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가 밤의 이야기, 즉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낮의 이야기, 즉 현실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 두 부분이 서로 대립되며,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장은 ‘밤의 극장의 풍경’으로, 8장은 ‘날이 밝아 올 무렵’으로 시작되고 있다.

담화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현상학적 분석과 수사학적 분석을, 정념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실비의 질투와 실망, 주체의 자만심과 변덕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담화 기호학적 분석

### (1) 현상학적 분석

나는 아직 들고 있던 신문을 막연히 훑어보다가 다음 두 줄을 읽었다. «시골의 꽃다발 축제 - 내일 상리스의 사수들이 루아지의 사수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할 것임». 매우 간단한 이 글이 내 안에서 아주 새로운 일련의 기억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어느 시골에 대한 추억, 젊은 시절의 순박한 축제들의 아득한 메아리였다.(pp.30~31)<sup>14)</sup>

기호 분석에 있어서 표현면과 내용면은 기호 기능으로 결합되기 전에는 표현의 실질, 내용의 실질에 불과하지만, 두 면이 기호 기능으로 결합되면서부터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된다. 인용문에서 <신문의 두 줄 기사>는 주체의 아주 새로운 일련의 기억들과 연결되기 전에는 순전히 실질일 뿐이지만, 두 면이 기호 기능으로 연결된 후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되어 비로소 의미를 지각하고 포착할 수 있다.

발화 행위소의 첫 번째 형태인 발화 현동태<sup>15)</sup>는 첫 번째 활동으로 신문의 두 줄 기사를 보면서 표현면인 외수용적 세계와 내용면인 내수용적 세계 사이의 분배를 결정하는 위치 결정을 하여 현존의 장을 세운다. 연이어 두 번째 활동으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표현면에 해당하는 내용면에 지시가 작동해 분리작용을 하는데, 무의식적 기억을 떠올리게 한 «시골의 꽃다발 축제 (...) 증정할 것임»은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면이고 의식의 심저에 남아 있는 <아주 새로운 일련의 기억들>은 내부세계를 지칭하는 내용면이며, 이 두 면은 신체의 자기수용적 지각에 의해 연결된다.

그리고 두 면의 경계를 정하는 위치 결정은 두 가지 활동, 즉 지향과

14) G. de Nerval, *Op. cit.*, 1999.

15) 발화 현동태와 여러 가지 분석 도구에 대해서는 「황순원 단편소설 「그늘」의 담화 기호학적 분석」 in 『한국 기호학의 최전선』, 한울, 2021, 188~191쪽 참고.

포착으로 굴절하는데, <시골의 꽃다발 축제 (...) 증정할 것임>은 포착된 것이고, 감각능력에 의해 주체의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아주 새로운 일련의 기억들> 곧 <어느 시골에 대한 추억>이다.<sup>16)</sup> 지향은 강도의 양식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체가 감각적, 지각적, 정서적인 강도를 자신의 신체에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면에 포착은 신체가 위치, 거리, 차원, 양을 지각한다는 점에서 범위의 양식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소녀들이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옛 곡조를 노래하며 잔디밭에서 원무를 추고 있었는데, 그 노랫말이 너무도 꾸밈없이 순수한 프랑스로 되어 있어, 우리는 천년 이상 동안 프랑스의 심장이 고동쳤던 발루아의 옛 고장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p.32)

앞 장에서 두 줄의 신문기사를 읽은 주체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다. 비수면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온갖 정경들이 떠오르는데 특히 그 시절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이 폭포수처럼 밀려온다. 텍스트의 맥락으로 보아 그 당시 주체는 열두 살 정도의 소년이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의 온갖 정경들 가운데 주체는 청각을 통한 분리작용으로 과거를 기억하는데 <꾸밈없이 순수한 프랑스어>는 외수용적 지각이고, <발루아의 옛 고장>은 내수용적 지각이며, 지각하는 신체가 두 면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위치 결정은 지향과 포착으로 굴절하는데 <꾸밈없이 순수한 프랑스어>는 포착된 것이고, 감각능력을 통해 주체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발루아의 옛 고장>이다.

그날 밤은 나에게 감미로운 밤이었으며, 나는 실비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수도원이 보이자, 그것이 아드리엔이 살고 있는 수도원일지도 모른다는 생

---

16) 같은 책 209~210쪽 참고.

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 날이 밝아오며 따라 그런 헛된 추억은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단지 실비의 장밋빛 얼굴만이 남았다. 나는 ‘가서 그녀를 깨우자’고 생각하고, 루아지의 길로 되돌아갔다.(p.47)

인용문에서 발화 현동태가 등장하여 첫 번째 활동으로 지각하는 신체의 중개에 의해 표현면과 내용면의 분배를 결정하여 위치 결정을 한다. 그 다음 분리작용이 작동되는데 발화 현동태는 시각을 통한 분리작용으로 마을의 <수도원>이 <아드리엔이 살고 있는 수도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마을의 <수도원>이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면이고, <아드리엔이 살고 있는 수도원>은 내부 세계를 지칭하는 내용면이 된다. 더불어 포착된 것은 마을의 <수도원>이고, 지향된 것은 <아드리엔이 살고 있는 수도원>이다.

면동이 트면서 밝아오는 날과 함께 주체의 밤의 몽상은 사라지고, 그는 현실로 돌아와 실비를 깨우러 나선다.

나는 전혀 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삼촌 집을 다시 보러 몽타니로 갔다. 그 집의 노란 정면과 초록색 덧문들이 어렴풋이 보이자 큰 슬픔이 나를 엄습했다.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았지만, (...) 덧문이 열리자, 나는 같은 상태로 보존된 낡은 가구들을 다시 보며 가슴이 몽클했다.

(...)

나는 나를 이 고장과 연결시켜 준 아직 젊고 생기발랄한 유일한 얼굴, 실비를 다시 보고 싶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루아지로 되돌아갔다.

(...)

실비의 매혹적인 눈빛, 미친듯한 달음박질, 즐거운 외침들이 내가 이제 막 둘러 본 장소들에 그토록 많은 매력을 더해 주었었는데! (...) 오! 그 당시에 시골 사람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1년에 한번 할쏘기 축제에서 나하고만 춤을 추었으니까.(pp.62-69)

주체는 몽타니(Montagny)에 있는 돌아가신 삼촌 집의 벽과 덧문들을 보자 삼촌이 의식의 표층에 떠오르면서 큰 슬픔이 복받쳤다. 그는 시각을 통한 분리작용으로 과거를 기억하는데, <노란 정면, 초록색 덧문들, 낡은 가구들>은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면이고, <삼촌>은 내부 세계를 지칭하는 내용면이며, 지각하는 신체의 역할로 이처럼 두 면이 연결된다. <정면, 덧문들, 가구들>은 포착된 것이고, 감각능력을 통해 주체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삼촌>이다.

이렇게 주체의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던 과거 기억이 의식의 표면으로 솟아오르는데 곧 이어 이 흐름은 시간이나 공간을 달리하는 다른 의식으로 옮겨가 고향의 여자 친구 실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텍스트에서는 과거의 의식들이 동시에 현존하는데, 과거의 삶과 추억을 겹쳐 놓아 공존하게 함으로써 독자가 일시에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주체가 그 고장을 보면 실비가 생각나므로 그 <고장>은 표현면이고 <실비>는 내용면이다. 또한 그 <고장>은 포착된 것이고, 주체 내부에서 지향된 것은 <실비>이다. 더불어 주체는 <실비의 매혹적인 눈빛, 미친 듯한 달음박질, 즐거운 외침들>을 떠올리면서, <시골사람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1년에 한 번 활쏘기 축제에서 나하고만 춤을 추었으니까>라고 자만하고 있다.(316쪽 자만심 참고)

## (2) 수사학적 분석

루브르에서 더 가면 사과나무가 늘어선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꽃들이 밤에 땅위의 별들처럼 빛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었다. 그 길이 작은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었다.(p.39)

주체는 밤새도록 춤을 추는 연중 유일한 축제인 활쏘기 축제로 실비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루브르를 지나 사과나무가 늘어선 곳에서 빛나는 꽃들을 보았다.

인용문에서 꽃들이 땅위의 별들에 비유되고 있다. 표준수사도식의 첫 단계 대치는 각각 기점과 목표가 되는 두 의미 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꽃은 /식물/이고 별은 /광물/이므로 이러한 차이에서 대치가 일어난다. 둘째 단계 지배는 발화 행위에 의해 채택된 지각적 입장의 결과인데, 광물 영역의 동위성보다 오히려 식물 영역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보장된다. 셋째 단계 해소는 유추의 형태를 띤다. 담화는 해석자에게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광물 영역에서 식물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광물인 별은 기점 현동태가 되고 식물인 꽃은 그것의 목표 현동태가 되며, 이 두 가지는 위치 행위소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후자는 전자가 가져다 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그와 유사한 빛나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녀(실비의 대고모님)는 몇 제곱미터 땅으로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이 별세한 이후 마을 사람들이 그 밭을 경작해 주었다. 조카딸이 도착하자, 집안은 마치 불을 지핀 것 같았다.(p.49)

위의 인용문에서 집안이 활기를 띠어 불을 지핀 것에 비유되고 있다. 이 경우 불을 지핀 것은 기점 현동태이고, 활기를 띤 것은 목표 현동태이다. 표준수사도식 첫 단계에서 기점 현동태와 목표 현동태는 공유된 특성을 바탕으로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불의 /물질명사/ 영역과 활기의 /추상명사/ 영역 중 후자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부여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 현동태 <활기를 띠다>는 기점 현동태 <불을 지피다>의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특성을 부여받아 그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된다.

앵무새는 한창때처럼 아침 모이를 달라고 하며, 주름진 피부로 둘러싸인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은 노인들의 경험 많은 시선을 연상케 했다.(p.63)

주체의 삼촌이 생전에 키우셨던 앵무새의 눈을 노인들의 눈에 비유한 것을 표준수사도식 3단계로 분석해 보면, 첫 단계 대치가 일어나는 것은 기점과 목표라는 두 의미 영역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기점 현동태 노인의 눈은 /인간/에 속하고, 목표 현동태 앵무새의 눈은 /조류/에 속하므로 두 의미 영역의 차이를 말한다. 둘째 단계 지배에서는 발화행위를 통해 채택된 지각적 입장의 결과로서 /인간/ 영역의 동위성보다 /조류/ 영역의 동위성에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부여된다. 셋째 단계 해소는 유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담화는 해석자에게 유추적 변형을 이용하여 /인간/ 영역에서 /조류/ 영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특히 /조류/ 영역은 /인간/ 영역이 제공하는 감각적이고 직관적 특성인 경험 많은 눈길을 받아들인다.<sup>17)</sup>

## 2) 정념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에서 주인공의 여인에 대한 사랑은 <이상적 사랑>과 <현실적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상은 소년 시절에 함께 원무를 춘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만난 적이 없는 아드리엔이고, 후자의 대상은 작품의 제목인 실비이다. 아드리엔이 발루아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아름다운 금발의 소녀라면, 실비는 소박하고 순수한 시골 소녀의 고대 님프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1836년경 여배우 제니 콜롱(Jenny Colon, 혹은 Aurélie)이 아드리엔과 실비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인공 앞에 나타나는데, 여배우에 대한 사

---

17)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앵무새의 눈을 노인의 시선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류/ 영역이 경험 많은 눈길의 /인간/ 영역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인간/ 영역에서 /조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된다.

량은 작가의 어린 시절 숭고한 이상적인 사랑 아드리엔에 대한 변형이었다. 주인공과 여배우는 한때 서로 사랑하는 듯 했으나, 그 여자는 곧 그를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얼마 안 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텍스트에서 아드리엔과 제니 콜롱은 잠깐 등장하여 짧게 묘사될 뿐이다. 그래서 주인공 ‘나’와 실비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2)~(5) 참고)

- (1) 텍스트의 첫 장에서는 밤이 주는 몽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주인공이 밤마다 가는 극장에 대한 묘사와 연극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배우에 대한 것이다.

나는 그녀 안에서 사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녀는 나만을 위해 사는 듯 했다. 그녀의 미소는 나를 무한한 행복감으로 가득 채웠으며, 매우 감미로우면서도 강하게 울리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나를 기쁨과 사랑으로 전율케 했다.(p.25)

인용문에서 주체인 ‘나’는 정념적 가상체에 갇힌 주체, 즉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이다. 주체의 상상은 실제 존재태와는 관계없이 정념적 분리작용에서 나오는 가상체 안에서 그 자신을 매우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녀 안에서 사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녀는 나만을 위해 사는 듯 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정념화된 주체의 능력으로서 기질적 역량(compétence thymique)의 구성요소로 나타난다.

심미적 주체 ‘나’는 심미적 대상 ‘그녀’에게 반하여 행위소적 불안정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대상을 아름답게 보는 미감을 느낀다는 것은 주체가 대상에 푹 빠지는 것, 곧 주체가 자신을 대상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주체는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에 동일시하여 주체가 심미적 대상이 되는

행위소적 역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념화된 주체인 나는 내가 겪은 순간을 매번 재구성하고 되새기며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다. 이러한 행복감은 최초의 애착관계 /~이어야 함 (devoir-être)/을 /~이기를 원함(vouloir-être)/과 /~하기를 원함(vouloir-faire)/으로 변형시키면서 사랑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나는 대상인 그녀를 미화시켜 근본적 미감을 다시 찾으며, 긴장 상태의 주체로 재연동화되어 의미의 최초 흔들림인 긴장적 분열을 다시 느낀다. 나는 그녀 안에서 사는 것 같고 그녀는 나만을 위해 사는 듯하다고 상상함으로써 나와 그녀는 혼용<sup>18)</sup>의 상태가 된다.

## (2) 실비의 질투

1장 끝 부분에서 두 줄의 신문 기사를 읽은 주체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비수면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온갖 정경들이 떠오르는데, 특히 그 시절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이 머리속에 폭포수처럼 밀려왔다. 텍스트의 맥락으로 보아 이 시절 주체는 열두 살 정도의 소년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원무 속의 유일한 소년으로, 이웃 마을의 어린 소녀 실비를 데리고 갔었다. (...) 그때까지 나는 그녀만을 사랑했고, 그녀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막 우리가 춤추고 있던 원무 안에서 아드리엔이라 불리는 늘씬하고 아름다운 금발 소녀가 눈에 띄었다. 갑자기 춤의 규칙에 따라 아드리엔만이 나와 함께 원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 우리의 키는 비슷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서로 키스를 하라고 말했고, 춤과 합창은 한층 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 마침내 나는 일어나 월계수들이 심어져 있는 성의 화단으로 달려갔고 (...) 월계수 가지 두개를 꺾어다가 왕관으로 엮어 리본으로 묶었다. 아드리엔의 머리 위에 그 장식을 얹었다. (...) 그

---

18) 정념 기호학의 의미생성행로 첫 번째 층위인 선조건 층위에서는 서로 모순적 힘인 선지향성(protensivité)과 혼용(fiducie)이 작용하는데, 전자는 선주체가 선대상과 분화되도록 하며, 후자는 분화를 중단시켜 선주체와 선대상이 융합의 상태가 되게 한다.

녀는 천국의 가장자리를 방황하는 시인 단테에게 미소 짓는 베아트리체처럼 보였다. 아드리엔은 일어섰다. 그 늘씬한 몸을 일으켜, 우리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성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 발루아가문의 피가 그녀의 혈관을 흐르고 있었다. (...) 우리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기숙생으로 있던 수도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내가 실비 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았다. 노래 하던 저 미녀에게 내 손으로 씌워준 월계관이 울음의 이유였다. 나는 그녀에게 가서 다른 것을 꺾어 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것을 전혀 갖고 싶지 않으며 가질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집까지 바래다주는 동안 나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pp.32~34)

위의 인용문에서 실비는 자신이 / ‘나’와 함께이기를 원함(vouloir être conjoint avec ‘Moi’)/ 과 / ‘나’와 함께임을 믿음(croire être conjoint avec ‘Moi’)/을 투사하였다. 여기에서 실비를 S<sub>1</sub>으로, ‘나’를 S<sub>2</sub>로 할 때, S<sub>2</sub>는 S<sub>1</sub>의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가상체(simulacre)로 간주된다. 두 가지 양태문을 도식화하여 상호 기대감(attente fiduciaire)의 도식을 도출할 수 있다.

S<sub>1</sub>/원하다/ [ S<sub>2</sub> → (S<sub>1</sub> ∩ Ov) ]: 단순 기대감

S<sub>1</sub> /믿다/ [ S<sub>2</sub>... → (S<sub>1</sub> ∩ Ov) ]: 상호 기대감

(S<sub>1</sub>:실비, S<sub>2</sub>:주인공 ‘나’, Ov :월계관)

위에서 단순 기대감은 주체(S<sub>1</sub>)를 가치대상(Ov)과의 관련 속에 두는 것을 말하며, 이 도식은 <S<sub>1</sub>은 S<sub>2</sub>가 S<sub>1</sub>이 가치대상과 연결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도식 상호 기대감은 단순 기대감에 덧붙여 또 다른 주체(S<sub>2</sub>)와의 양태 관계를 가정하는 것을 말하며, 도식의 ...는 S<sub>2</sub>의 양태 역량이 다양한 양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S<sub>2</sub>에 부여하는 양태

역량의 선택이 중요하다. 예컨대 ...을 /할 수 있다(pouvoir)/라고 할 때, 이 도식은 <S<sub>1</sub>은 S<sub>2</sub>가 S<sub>1</sub>이 가치대상 Ov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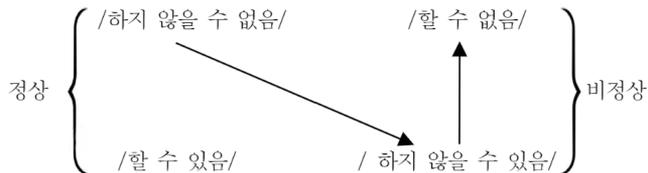
이 경우 두 주체 간에 진정한 신뢰 계약이나 유사한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S<sub>2</sub>는 끝까지 이런 계약을 느끼지 못하며, 이를 가상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양태는 단지 S<sub>1</sub>의 상상적 산물에 불과하며, 이를 가상체라 한다.<sup>19)</sup>

인용문에서 S<sub>1</sub>은 S<sub>2</sub>가 자신만을 사랑했고 자신 밖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므로, 월계관을 자신에게 당연히 씌워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즉, S<sub>1</sub>은 S<sub>2</sub>가 /하지 않을 수 없음(ne pas pouvoir ne pas faire)/을 투사했다.

S<sub>1</sub>/믿다/ [ S<sub>2</sub>/하지 않을 수 없음/ → (S<sub>1</sub> ∩ Ov) ]

(S<sub>1</sub>: 실비, S<sub>2</sub>: 주인공 ‘나’, Ov : 월계관)

/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S<sub>2</sub>의 역량의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긍정적 수직축(deixis)을 정상이라는 메타용어로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이 S<sub>1</sub>이 S<sub>2</sub>에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의 평가이다. 정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S<sub>1</sub>이 S<sub>2</sub>가 자신만을 사랑했고 자신 밖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므로

19) 홍정표 저,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58-60쪽 참고.

로 당연히 월계관을 자신에게 씌워 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S_2$ 는 /할 수 없음/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부정한다.

$S_1$ 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가상체 /하지 않을 수 없음/을  $S_2$ 에게 부여된 역량 /하지 않을 수 있음/과 모순의 위치에 놓으면서  $S_2$ 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행동한다. 그러므로  $S_1$ 이 투사하는 /하지 않을 수 없음/과  $S_2$ 가 투사하는 /하지 않을 수 있음/은 상충적 관계이다. 모순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앞에 놓고, 두 주체 사이에는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으며 여기에서  $S_1$ 인 실비가 만든 가상체의 위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는 성의 화단으로 달려갔고 (...) 월계수 가지 두 개를 꺾어다가 (...) 아드리엔의 머리 위에 그 장식을 얹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실비는 질투로 괴로워 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질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질투는 적어도 세 행위자 질투자(jaloux), 연적(rival), 대상(O,  $S_3$ <sup>20</sup>)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주관적 정념이며 행위소 장치  $S_1$ (주체),  $S_2$ (연적), O(대상)의 삼각형은 일종의 상호 작용이다. 아울러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질투는 질투자와 대상 사이의 애착관계와 질투자와 연적 사이의 경쟁관계의 교차점에 있다. 그래서 질투는 애착과 경쟁의 변형에 관한 연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질투자는 들어서 아는 것에서보다 실제로 목격하는 것에서 더 많은 사랑의 상처를 느끼며, 그는 그 광경에 행위자로서 들어갈 수 없는 관찰자이다. 인용문에서  $S_1$ 은 O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고 기질적 변형을 하여 지독한 불행에 빠진다.

---

20) 미학에서는 사랑받는 존재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면, 윤리학에서는 그를 주체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미학이라는 것은 미적인 대상을 다루는 학문, 즉 미감을 느끼는 주체와 그 미감의 대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 반면,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즉 하나의 주체와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대상이 또 다른 하나의 주체가 된다. 요컨대 O가 대상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O로 표시하고, 또 다른 하나의 주체의 역할을 할 때는  $S_3$ 로 표현한다.

질투자 자신에 의한 스스로의 역량 평가는 사랑의 발생 시에 자신보다 대상을 우세한 위치에 놓으며(<그녀(실비)는 그런 것을 (...) 가질 자격도 없다>), 바로 질투의 순간에는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게 된다.

질투자는 대상에 정념적으로 애착할 때부터 그에게 종속되게 된다. 기질적 차원에서 O에 애착하는 S<sub>1</sub>의 기질은 O에 완전히 달려 있다. 그래서 O는 기질의 조작적 주체(sujet opérateur thymique)이다. 질투에서 주체와 대상 두 행위소 사이에 양태화의 분배는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S<sub>1</sub>이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O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질투에서는 O가 능력 주체이다. 아울러 S<sub>2</sub>는 S<sub>1</sub>이 그에게 부여하는 역할 만을 할 뿐이므로 S<sub>2</sub>는 S<sub>1</sub>이 투사하는 가상체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눈 앞에 펼쳐지는 실제 장면에 대해서까지도 행위자들은 질투자가 마음대로 투사하고 배치하는 가상체일 뿐이다. 인용문에서 S<sub>1</sub>은 S<sub>2</sub>가 O의 사랑을 받았으리라는 가상체를 세우면서 괴로워한다.

텍스트에서 올 수 밖에 없는 실비의 심적 상태를 양태로 표현하면,

/~이 아니어야 함(devoir-ne-pas-être): S<sub>2</sub>는 O와 연접이 아니어야 함.

/~일 수 있음(pouvoir-être): S<sub>2</sub>는 O와 연접일 수 있음.

/~임을 믿음(croire-être): S<sub>2</sub>는 O와 연접임을 믿음.

/~이 아니기를 원함(vouloir-ne-pas-être): S<sub>2</sub>와 O가 연접이 아니기를 원함.

(S<sub>2</sub>: 아드리엔, O: 주인공 '나')

이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질투자 S<sub>1</sub>은 자신이 월계관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연적인 아드리엔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가상체를 만들어 스스로 가치를 하락시킨다. 또한 S<sub>1</sub>은 O가 S<sub>2</sub>와 연접을 이룰 것이라는 가상체를 투사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움은 우는 행위로 표출되고 있다.<sup>21)</sup>

---

21) 앞의 책 189, 194, 201쪽 참고.

### (3) 주체의 자만심

내가 그리도 사랑했던 실비를 왜 3년간이나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아주 예쁜 소녀였고, 루아지에서 최고 미인이었는데! (…)  
그녀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 누가 그녀와 결혼했겠는가? 그녀는 그렇게 가난한데!  
(…) 내가 루아지 근처로 지금은 돌아가신 가엾은 삼촌을 뵈러 가곤 했을 때, 그녀는 어린 파리지역이었던 나만을 좋아했었다.(pp.35~36)

인간이란 자신의 손에 쉽게 잡히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주체는 자신이 매우 사랑했고 미인이었던 실비를 등한시하여 3년 동안이나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만을 사랑했다고 자만하고 있다.

주체가 자만심을 드러내는 것은 무도회의 청년을 대단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320쪽 참고)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자만심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에 근거를 두는 만큼, 그가 자만심을 나타내는 것은 실비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만심은 자신으로부터 기인하는 것(ce qui lui est dû)을 기반으로 하므로 /devoir-être/에 속하는데(est dû의 원형이 devoir이므로), 이는 애착관계의 /devoir-être/와 동류이다. /devoir-être/가 정념적 역할, 예컨대 질투로부터 전제될 때는 결과로서 애착관계를 가져오는 반면, 주제적 역할로부터 소환될 때는 결과로서 자만심을 초래한다.

주체는 실비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난하지 않아야 함/인데, /가난함/을 투사하고 있다.

### (4) 실비의 실망

축제에서 그녀의 오빠는 이미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의 가족을 찾

아본 지 오래 되었다고 나무랐다. 나는 학업 때문에 파리에 매어 있었다고 변명을 했고, 이번에는 그런 목적으로 왔노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날 잊어버린 거야. 우린 시골 사람들인데, 파리는 저 높이 있거든” 하고 실비가 말했다.(p.43)

인용문에서 실비의 오빠가 주체에게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자 주체는 학업 때문에 파리에 있어야 했다고 변명한다. 이에 실비는 날 잊었기 때문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망이란 상대방이 기대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가 실망을 느꼈다면, 그것은 실망 이전에 존재하며, 주체가 반대로 권리와 희망을 가지는 비-실망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

텍스트에서 실비는 주체가 곧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오랫동안 오지 않자, 비-실망의 상태에서 실망을 느끼고 자신을 저 높이 있는 파리보다 열등한 시골 사람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 (5) 주체의 변덕

나는 날이 밝아올 무렵에 (...) 루아지의 무도회에 들어섰다. (...)  
내가 그녀에게 “실비, 당신은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한숨지었다. “보세요.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인생이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 아! 당신은 왜 그때 돌아오지 않았나요! 근데 당신이 이태리에 있다고들 하더군요. 당신은 그곳에서 나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들을 보았겠지요! ‘

--- “실비, 당신의 눈매와 당신의 얼굴 같은 순수한 모습을 지닌 여자는 하나도 없었소.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어떤 고대의 님프라오.

(...)

나는 그녀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의 우유부단함과 변덕을 고백했고, 내 삶을 지나간 저 불길한 환영을 상기시켰다.

-- “나를 구해주오!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돌아온 거요.”

그녀는 나에게 측은한 눈길을 돌렸다...

그 순간, 우리의 대화는 갑작스런 큰 웃음소리로 중단되었다. (...) 그(실비의 오빠)는 멀리 가시나무 덩굴 속으로 사라진 무도회의 청년을 불렀는데, 그는 곧 우리와 합류했다.

(...)

나는 그가 별로 대단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pp.59~62)

주체와 실비는 예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주체가 그 지방의 축제에서 실비보다 더 늘씬하고 기품있는 아드리엔을 보자 그녀에게 반해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 주체는 파리로 유학을 간 후 수년 동안 아드리엔의 헛된 환영을 쫓았다.

실비는 주체가 이태리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태리의 예쁜 여자들에 끌려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즉, 그녀는 정념적 분리작용으로 <이태리에서 나보다 더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가상체를 투사하였다. 이 경우 실비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우유부단함과 변덕을 부리는 주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애착관계를 끊는 것으로, 실비는 심적으로 주체와의 관계를 끊는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주체는 고향 발루아로 돌아와 실비를 보자 그녀가 그동안 성숙하여 무척 아름다워졌으며 마치 고대의 님프 같아 그의 마음은 또다시 변하여 그녀에게 쏠리게 되었다. 한 마디로 주체의 사랑은 실비 → 아드리엔 → 실비로 변하는 변덕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주체는 대상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실비,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는 것을 알게 된 인지적 주체이며, 더불어 그녀의 마음이 변한 이유를 알기 원하는 인지적 주체가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대상의 마음이 변한 것을 인지한 인지적 주체는 불쾌감의 기질적 변형(<뜨거운 눈물을 흘리며>)을 한 기

질적 주체이다.

주체는 실비의 /~이어야 함/, /~일 수 있음/이 /~이어야 함/, /~일 수 없음/으로 변형한 것이 모두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변덕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여기서 주체의 우유부단함과 변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체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긴장상태의 주체로 재연동화되어 긴장적 변조에 잠긴다. 우유부단함의 긴장적 변조는 유보 변조와 개시 변조이며, 이러한 변조에서 우리는 /원하다/의 복잡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변덕은 주체의 심정의 변화라는 통사적 장치를 불변수로 한다. 변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잠재적이거나 상상적인 심정의 변화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랑에 있어서의 변덕은 사랑의 상태에서 증오의 상태로 가든지, 증오의 상태에서 사랑의 상태로 가는 심정의 변화, 혹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새로 등장한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심정의 변화를 불변수로 한다.

이제 변덕을 선조건, 기호-서사, 담화의 세 가지 층위로 알아보려고 한다. 선조건 층위에서 변덕의 긴장적 변조는 정지 변조와 개시 변조라 할 수 있다. 변덕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지 변조가 작동하며, 새로 변화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개시 변조가 작동한다. 개시 변조는 변화를 가져오는 개시의 장을 여는 사행의 출발점이며, 되어감(devenir)을 촉진시키는 변조이다.

기호-서사 층위에서 이러한 변조는 이산화 작용에 의해 정지 변조는 /~이기를 원하지 않음/이 되며, 개시 변조는 /~이기를 원함/이 된다. 이것은 담화 층위에 소환되어 기동상이 되는 변덕이 일어난다. 즉, 인용문에서 아드리엔에 대한 감정이 /~이기를 원하지 않음/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며, 실비에 대한 감정이 /~이기를 원함/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주체는 실비에게 자신의 변덕과 아드리엔이라는 불길한 환영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하지만 실비는 주체를 측은히 돌아 볼 뿐이었다. 그는 실비가 무도회에서 밤늦게까지 다른 청년과 춤을 추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

대한 애착이 더욱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실비가 아직도 주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주체의 실비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까지 강해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체는 연적인 무도회의 청년을 자신에게 <별로 대단한 상대가 아니라고> 자만함으로써 결국 실비를 놓치고 만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풍타닐이 담화 기호학에서 개진한 특수한 발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네르발의 증편소설 『실비』를 정념과 담화 기호학의 방법론에 역점을 두어 분석했다.

풍타닐은 서사와 정념 기호학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발화를 담화 기호학에서 다시 연구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주관성, 언어활동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발화의 개념을 명시했다. 담화 기호학의 시각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발화자와 발화 상대방이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담화와 관련하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관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이 아니며, 담화 현동태의 행위소 구조는 단지 위치적일 뿐이다. 그리고 발화는 이중의 메타 담화적 서술화인 존재적 서술화와 수용적 서술화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두 서술화는 발화를 일반적인 언어활동과 구별되게 한다. 이렇게 발화가 담화 기호학에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선택한 작품 『실비』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작가의 고향 발루아에 대한 추억을 소재로 이야기하고 있다. 담화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현상학적 분석과 수사학적 분석을 했고, 정념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실비의 질투와 실망, 주체의

자만심과 변덕을 분석했다.

정념 기호학의 여러 가지 분석 도구 가운데 특히 질투는 세 행위자 질투자, 연적,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주관적 정념이다. 더불어 질투의 양태 장치는 /~이 아니어야 함(연적은 대상과 연접이 아니어야 함)/, /~일 수 있음(연적은 대상과 연접일 수 있음)/, /~임을 믿음(연적이 대상과 연접임을 믿음)/, /~이 아니기를 원함(연적과 대상이 연접이 아니기를 원함)/의 네 가지로 특징지어지며, 텍스트에서 질투자 실비가 이 같은 양태 장치로 이루어지는 질투의 정념을 느낀다는 것을 파악했다.

끝으로 본고는 『실비』가 아직 기호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작품인 만큼, 정념과 담화 기호학 이론으로 동시에 분석하는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고 그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김형효, 『메틀로 뽕띠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이준섭, 『제라르 드 네르발의 삶과 죽음의 강박관념』,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 홍정표,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황순원의 단편소설 「그늘」에 대한 담화 기호학적 분석」, in 『한국 기호학의 최전선』, 한울, 2021, 185~212쪽.
- \_\_\_\_\_, 「프랑스 보들레르 시 「백조」의 정념과 담화 기호학적 분석」, 제72집, 한국기호학회, 2022, 12. 30, 199~232쪽.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Gallimard, 1966. (김현권 옮김,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 한불 문화출판, 1988)
-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Gallimard, 1974. (황경자 옮김,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I』, 민음사, 1992)
- De Nerval, G., *Sylvie*, Le livre de poche, 1999
- \_\_\_\_\_, *Oeuvres Complètes I*, Ed. Jean Guillaume et Claude Pichois, Gallimard, 1989. (이준섭 옮김, 『불의 딸들』,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4)
- \_\_\_\_\_, *Sylvie/Promenades et souvenirs*, *Oeuvres Complètes III*, Ed. Jean Guillaume et Claude Pichois, Gallimard, 1993. (이준섭 옮김, 『실비/산책과 추억』, 지만지, 2008)
- Ducrot. O., *Le dire et le dit*, Editions de minuit, 1984.
- Fontanille, J., *Les espaces subjectif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l'observateur*, Hachette, 1989.
- \_\_\_\_\_, *Sémiotique du visible*, P.U.F., 1995.
- \_\_\_\_\_, *Sémiotique et littérature*, 1998. (김치수 · 장인봉 옮김,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oma et Séma, figures du corps*, Maisonneuve & Larose.
- \_\_\_\_\_, “Sémiotique des passions”,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 \_\_\_\_\_. ,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 *Corps et sens*, PUF, 2011.
- Fontanille, J., & Zilberberg, C.,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 Fontanille, J., & Zinna, A., *Les objets au quotidien*, PULIM, 2005.
- Géninasca, J., *La parole littéraire*, Paris, PHF, 1999.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Greimas, A.-J. &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Greimas, A. -J. &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Paris, Seuil, 1991.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 P.U.F., 1979. (홍정표 옮김, 『기호학으로의 초대』, 어문학사, 1997)
- \_\_\_\_\_. , *Narratologie -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 P.U.F., 1983. (홍정표 옮김,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 *Histoire de la sémiotique*, coll. Que sais-je?, Paris : P.U.F., 1992. (박인철 옮김, 『기호학사』, 한길사, 2000)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Richer, J., *Nerval, expérience et création*, Hachette, 1963.

## A Passion and Discourse Semiotic Analysis of French Writer Nerval's Novelette 『Sylvie』

Hong, Jeong-Pyo

In the Discourse Semiotics published by Jacques Fontanille, a French semiotician, in 1999, a theory about the concept of special speech, not the concept of general speech, was stated. This study examined <Speech and Communication>, <Speech and Subjectivity>, and <Speech and Language Activity> among his studies on speech. The view of discourse semiotics invalidates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and regards taking a position in relation to discourses in order to construct meanings as important instead of making messages circulate. In addition, introducing the concept of <subjectivity> is to modify the positional structure of the instances of discourses into the transformative structure of spoken discourses, and this is not the perspective of active discourses. In addition, speech can be defined as existential narrations and receptive narrations, which are double meta-discourse narrations, and these two types of narrations enable the distinction of speech from general <language activities>. As such, in discourse semiotics, speech appears with a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at of communication, subjectivity, and language activities. As with the symbolist poets Baudelaire and Rimbaud, G. de Nerval can be said to be a writer whose works and life are closely connected and who are close to a mysterious and magical world. In addition, he is evaluated as a pioneer of symbolist or surrealist writers. 『Sylvie』, the work selected by us, is known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lyrical works in France, and tells his memory of his hometown, Valois. In the discourse semiotic analysis, phenomenological analysis and rheto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and in the passion semiotic analysis, the jealousy and disappointment of Sylvie and the conceit and whim of the subject were analyzed. As this work has not yet been analyzed

semiotically, in this paper, a multilateral analysis utilizing various analytical tools of discourse and passion semiotics was attempted, and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the analysis were proved.

Keywords : Meta-discourse narration, Speech, Receptive narration, Language activity, Communication, Existential narration, Subjectivity

투고일: 2023. 07. 22./ 심사일: 2023. 08. 11./ 심사완료일: 2023. 08. 14.